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2, pp.249-284
<https://doi.org/10.29212/mh.2024..132.24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45년 高唐 전쟁과 唐兵의 편제

최진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목 차
1. 서론
 2. 李勣의 부대(遼東道)
 - 가. 折衝府의 衛士, 征人 및 기타
 - 나. 蘭·河 2州 降胡
 3. 唐太宗의 직할부대
 4. 張亮의 水軍
 5. 營州都督 張儉의 군대
 6. 결론

초 록 이 논문은 645년 高唐 전쟁 당시 지휘계통에 따른 唐兵의 편제를 분석한 논문이다. 唐兵은 遼東道行軍大總管 李勣의 육군과 平壤道行軍大總管 張亮의 水軍, 唐太宗의 직할부대로 구성되었다.

營州都督 張儉의 부대는 명목상 李勣의 부대에 속했지만 당태종의 명령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 李勣의 부대(遼東道)는 折衝府 衛士와 모병한 征人(兵募), 突厥 등 유목민 군사(蕃兵), 羌人 등으로 추정되는 蘭·河 2州의 降胡로 편성되었다. 唐太宗이 지휘한 군대는 최소 6만이고 최정예 친위부대인 元從禁軍과 飛騎를 비롯한 北衙禁軍과 折衝府 衛士, 征人, 유목민 군사(蕃兵) 등으로 편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張亮이 지휘한 水軍은 江·淮·嶺·碭의 勁卒 또는 長安·洛陽의 召募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자 지역의 사람들은 항해와 水戰에 익숙했기 때문에 징발되었다. 張儉이 지휘한 營州와 幽州 都督府의 折衝府 숫자가 36개 전후였기 때문에 折衝府 衛士뿐만 아니라 변방의 鎮·戍·城·守捉 등에 주둔하는 防人들도 징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보다 契丹·奚·靺鞨 등 騎兵이 주력이었을 것이다.

주제어: 645년 高唐 전쟁, 折衝府 衛士, 征人, 水軍, 蕃兵

(원고투고일 : 2024. 7. 10, 심사수정일 : 2024. 8. 17, 게재확정일 : 2024. 9. 7.)

1. 서론

645년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은 皇帝가 직접 군대를 지휘하고 외국을 공격한 드물고 특이한 전쟁이었다. 전쟁에 동원된 唐兵의 수는 隋煬帝의 高句麗 침략 때보다 적었고 唐兵은 隋煬帝가 점령하지 못한 遼東城을 비롯해 몇 개의 성을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다. 唐太宗이 親征한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高唐 전쟁에 비해 사료가 풍부하다.

그러나 高句麗를 침략한 唐兵의 수가 史書마다 다르게 기록되었고 심지어 『新唐書』처럼 한 사서에서도 병력수를 달리 기록하였다. 따라서 645년 高唐 전쟁의 병력수 파악이 학계의 주된 관심이었기 때문에 병력 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¹⁾ 또 唐의 병참 문제²⁾를 다룬 연구도 주목받고 있다. 唐兵의 편성과 관련된 연구는 적은 편이며, 주로 645년 전쟁에 참가한 이민족 병사, 즉 蕃兵을 분석하였다.³⁾ 선행연구에서 주로 『舊唐書』

1) 645년 전쟁 당시 병력수 연구사는 이민수, 「645년 唐의 高句麗 원정군 규모 推算」, 『한국상고사학보』 100, 2018, 140쪽, 표 1. 645년 唐의 고구려 원정군 규모에 대한 주요 諸說 현황 참조. 최근에 곡물 소비량으로 唐兵의 수를 추산한 연구가 발표되었다(최진열,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수-군량수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軍史』 124, 2022, 133-165쪽).

2) 楊希義·于汝波, 『唐代軍事史』上(中國軍事通史 第十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8, 156-161쪽 및 370쪽; 曹柳麗, 「隋煬帝·唐太宗征高句麗軍事後勤建設比較研究」,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최진열, 「645년 高唐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東洋史學研究』 167, 2024. 101-160쪽; 최진열, 「645년 高唐 전쟁과 唐兵의 경제적 손실」, 『비교중국연구』 5-2, 2024. 5-32쪽.

3) 서영교, 「고구려의 대당전쟁(對唐戰爭)과 내륙아시아 제민족-安市城전투와 薛延陀-」, 『軍史』 49, 2003, 204-206쪽; 이효재, 「7세기 東突厥系 蕃將과 蕃兵의 활동-麗唐戰爭 시기 활동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5, 2013, 187-195쪽; 宋娜娜, 「

와 『新唐書』, 『資治通鑑』의 사료와 墓誌銘 일부를 인용했는데, 645년 高唐 전쟁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은 『冊府元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필자는 『冊府元龜』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료를 분석하면 645년 唐兵의 구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식상 唐兵은 平壤道行軍大總管 張亮이 지휘한 수군과 遼東道行軍大總管 李勣의 육군으로 나눌 수 있고 唐太宗이 거느린 직할부대, 명목상 李勣의 지휘를 받았지만 별도로 활동한 營州都督 張儉의 부대 등도 있었다. 『冊府元龜』에 전쟁에 종군한 行軍總管의 이름과 직책이 있는 등 645년 高唐 전쟁의 唐兵을 분석하는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자들과 중국 학자들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 이를 분석하면 각 부대의 병종과 병사 징발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본고에서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전쟁에 참가한 兵種과 군사 규모, 병사들의 징발 지역, 무장의 이력을 분석함으로써 645년 전쟁에 참전한 唐兵의 편제와 구성을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2장에서 李勣이 지휘한 折衝府 衛士, 征人(兵募) 등 병사의 구성을 검토하며 李勣이 지휘한 蘭·河 2州 降胡를 규명한다. 3장에서 『冊府元龜』 등을 바탕으로 唐太宗이 직접 지휘한 직할부대의 병종과 병력을 검토한다. 4장에서 張亮이 지휘한 수군이 차출한 지역과 行軍總管의 이력을 분석한다. 5장에서 營州都督 張儉이 지휘한 幽州와 營州 都督府의 병사 구성과 契丹·奚 등 이 민족 군대를 살펴본다.

2. 李勣의 부대(遼東道)

가. 折衝府의 衛士, 征人 및 기타

645년 高唐 전쟁 당시 果毅都尉 馬文舉(遼東城 전투), 折衝都尉 曹三良(新城의 전투)이 활동하였다.⁴⁾ 折衝都尉와 果毅都尉는 折衝府의 지휘관 명칭이다. 따라서 이들이 이끄는 折衝府의 군대가 종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左武衛果毅 薛鬪頭가 駐蹕山에서 전사하였다.⁵⁾ ‘左武衛果毅’는 左武衛에 속한 果毅都尉의 준말이다. 果毅都尉는 折衝府의 부장이며 左果毅都尉와 右果毅都尉가 각각 1명이 있었고 上府의 果毅都尉는 從五品上, 中府는 正六品上, 下府는 從六品下였다.⁶⁾ 따라서 신라인 薛鬪頭가 從五品上-從六品下の 품계를 지닌 중급 將領인 果毅都尉로서 종군했음을 알 수 있다. 墓誌銘에서 明威將軍 香谷府折衝都尉 交河道總管라는 직함의 曹欽이 江夏王 道宗의 裨將으로 발탁되어 종군하였다.⁷⁾ 香谷府는 京兆府(長安)에 위치하고 右威衛에 속했으며 현재

4) 楊希義·于汝波, 『唐代軍事史』上, 138-139쪽

5) 『三國史記』卷47 「薛鬪頭傳」, “會太宗文皇帝親征高句麗, 自薦爲左武衛果毅. 至遼東, 與麗人戰蹕蹕山下, 深入疾鬪而死, 功一等.”

6) 『唐六典』(李林甫 等撰, 陳仲夫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92(2005重印)) 卷25 「諸衛府」 諸府條細注, 644쪽, “上府從五品下, 中府正六品上, 下府從六品下. 貞觀十年, 因隋果毅郎將之名, 改爲果毅都尉.”

7) 「曹欽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周紹良·趙超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乾封014, 167쪽; 「大唐故左驍衛大將軍上柱國雲中縣開國公曹府君(曹欽)墓誌銘」, 『全唐文新編』20(周紹良 主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0), 14211쪽. 墓誌文의 “朝鮮遼名, 王旅用康”에서 “朝鮮”은 高句麗를 가리킨다(최진열,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 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의 陝西省 武功縣에 위치한 韋水와 漠谷 사이 지역으로 추정된다.⁸⁾ 左驃騎左一軍車騎將軍 上柱國 직함의 王道智도 唐太宗의 親征에 종군하였다.⁹⁾ 左驃騎左一軍車騎將軍은 太宗 시기의 果毅都尉에 해당한다. 이전의 관명을 사용했지만¹⁰⁾ 王道智도 折衝府將領으로 출정했음을 알 수 있다. 『冊府元龜』 「帝王部」 親征門에 645년 전쟁에 참전할 무장 명단 가운데 左領軍將軍 左難當(平壤道副總管), 行中郎將 龐孝恭과 右驍衛將軍 程名振(平壤道行軍總管), 左衛率 李勣(遼東道行軍大總管), 右領軍大將軍 執失思力, 右驍衛大將軍 契必何力, 右屯衛將軍 姜德本, 左武衛將軍 麴智盛, 左驍衛中郎將 安縣和(遼東道行軍總管)¹¹⁾이 折衝府를 거느린 衛府를 지휘하였다.¹²⁾ 즉 최소 左武衛, 左驍衛, 右驍衛, 左領軍, 右領軍, 右屯衛(右威衛), 左衛率의 일부 折衝府 衛士도 소속 衛·府 大將軍·將軍·中郎將과 함께 종군했음이 분명하다. 이상

2012, <표 2> 唐代 墓誌銘의 高句麗 표기 일람, 233쪽). 이하 墓誌銘은 “인명+墓誌”로 약칭한다.

- 8) 張沛, 『唐折衝府匯考』, 西安: 三秦出版社, 2003, 52쪽 및 附錄二 諸衛·率府統折衝府表, 334쪽.
- 9) 『王道智墓誌』, 『唐代墓誌彙編』(周紹良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乾封 022, 456쪽, “以君才經文武, 擢授驃騎左一軍車騎將軍. …… 既而天子按劍, 親事遼陽, 三韓方梗, 六軍不振.”; 『唐故左驃騎左一軍車騎將軍上柱國王君墓誌銘』, 『全唐文新編』 20, 14194쪽. 墓誌文의 “既而天子按劍, 親事遼陽”은 唐太宗의 親征을 암시하고 ‘遼陽’과 ‘三韓’은 高句麗를 가리키며, ‘三韓方梗’은 高句麗의 완강한 저항을 암시한다(최진열,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표 2> 唐代 墓誌銘의 高句麗 표기 일람, 233쪽).
- 10) 驃騎左一軍車騎將軍은 唐太宗 시기의 관명이 아니다. 唐高祖 武德 연간 초기에 설치되었던 驃騎將軍과 車騎將軍은 武德 6년 각각 統軍과 別將으로 改稱되었고 貞觀 10년에 折衝都尉와 果毅都尉로 바뀌었다(『新唐書』 卷59 「兵志」, 1324-1325쪽). 따라서 『王道智墓誌』의 官名은 당시 벼슬이 아니기 때문에 묘지명 기록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그러나 武德 연간에 임명된 관직을 개칭 이후에도 墓誌銘에 이전 官名으로 호칭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일단 折衝府의 果毅都尉로 참전했다고 서술한다.
- 11)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쪽.
- 12) 左右屯衛는 龍朔 2년(662)에 左右威衛로 바뀌었다(『舊唐書』 卷42 「職官志」, 1787쪽).

의 사례에서 折衝府 병력이 高句麗 침략의 주요 병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병(征人)을 살펴보자. 唐代에 折衝府 衛士의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쟁이 터지면 折衝府 衛士 이외의 군사를 백성들로부터 모병하였다. 이를 학술 용어로 兵募라고 한다.¹³⁾ 『唐律疏議』에서 衛士가 아니지만 募兵에 의해 전쟁에 참전하는 병사를 법률상 용어로는 征人이라고 칭하였다.¹⁴⁾ 645년 전쟁 다시 張亮이 지휘한 水軍에 長安과 洛陽에서 召募한 병사뿐만 아니라 육군에도 兵募로 소집한 군사의 존재가 확인된다. 『舊唐書』 「太宗紀」에 “天下의 甲士를 징발하라고 명령하여 10만 명을 召募하여 모두 平壤으로 진격하여 高麗를 정벌하였다”¹⁵⁾라는 기사에서 甲士는 무장한 정규군이므로 10만 명이 折衝府 衛士와 防人 등 정규군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징집한 兵募였다. 당시 兵募로 高句麗 원정군을 조직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료가 있다. 俟利苾이 휘하 유목민을 데리고 勝州와 夏州에 거주할 것을 청하

-
- 13) 兵募 연구는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史學雜誌』 41-11·12, 1930 (『秦漢隋唐史の研究』上卷,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0에 수록); 玉井是博, 「唐代防丁考」, 『支那社会經濟史研究』, 岩波書店, 1942(原載 池内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刊行會 編, 『池内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座右寶刊行會, 1940); 菊池英夫, 「唐代兵募の性格と名称について」, 『史淵』 67·68, 1956, 75-98쪽; 菊池英夫,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 『東洋學報』 44-2, 1961, 54-88쪽; 菊池英夫,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続編)」, 『東洋學報』 45-1) 1962, 33-68쪽; 唐耕耦, 「唐代前期の兵募」, 『歷史研究』 1981-4, 1981; 孫繼民, 「從吐魯番文書所見的行軍制度」, 武漢大學碩士論文, 1984.12; 張國剛, 「關於唐代兵募制度的幾個問題」,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臺北: 文津出版社, 1994, 29-53쪽; 大庭脩, 「唐告身の古文書學的研究」, 『唐告身と日本古代の位階制』, 皇學館出版社, 2003, 176-184쪽; 齋藤勝, 「唐代内附異民族への賦役規定と邊境社會」, 『史學雜誌』 117-3, 2008, 23-24쪽 참조.
- 14) 『唐律疏議』(劉俊文 撰, 『唐律疏議箋解』, 北京: 中華書局, 1996) 卷16 第227條 「擅興」 揀點衛士征人不平條疏, 1173쪽, “議曰, 揀點衛士, 注云征人亦同. 征人, 謂非衛士, 臨時募行者.”
- 15) 『舊唐書』 卷3 「太宗紀」下 貞觀十八年十一月庚子條, 57쪽.

자羣臣이 이들을 믿을 수 없다며 唐太宗에게 洛陽에 머물고 장수들을 高句麗로 보내자고 간언하였다. 이때 태종이 신하들에게 “朕이 지금 高句麗를 공격하는데 모두 종군하기 원하는 사람을 취하여 10명을 모으려고 하면 100명을 얻었고, 100명을 얻으려고 하면 1천 명을 얻었으니 종군하지 못한 자들이 모두 매우 분하게 여기고 수심에 차있었으니 어찌 隋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從軍시킨 것과 어찌 비교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¹⁶⁾ 이 말이 사실이라면 唐太宗은 折衝府 衛士 등 정규군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召募(兵募)했음을 알 수 있다. 사서에서 薛仁貴가 모병에 응한 예가 보인다. 그는 장군 張士貴를 찾아가 병사가 되기를 청하였고 전쟁에 종군하여 안시성에서 고연수·고혜진의 고구려군을 격파하는 공을 세워 당태종의 눈에 들어 游擊將軍 雲泉府果毅都尉로 발탁되었다.¹⁷⁾ 이 기사에서 설인귀가 자발적으로 645년 전쟁에 종군했으며, 行軍總管 張士貴를 찾아간 것을 보면 모병은 行軍總管들이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묘지명에서 張羊,¹⁸⁾ 任素,¹⁹⁾ 楊大隱,²⁰⁾ 高感²¹⁾도 모병에 응하여 高句麗 침략

16) 『資治通鑑』卷197「唐紀」13 太宗貞觀十八年十二月甲寅條, 6215-6216쪽.

17) 『舊唐書』卷83「薛仁貴傳」, 2781쪽; 『新唐書』卷111「薛仁貴傳」, 4140쪽.

18) 「張羊墓誌」, 『唐代墓誌彙編』顯慶001, 229쪽, “君諱羊, 字君節, 南陽白水人也。……十九年, 駕幸遼左, 君乃髮起衝冠, 投募從戎, 施功展効。”

19) 「任素墓誌」, 『唐代墓誌彙編』顯慶38, 253쪽, “君諱素, 其先汾陰人也。……十九年, 駕幸遼左, 君乃髮起衝冠, 投募從戎, 施功展効。”

20) 「楊大隱墓誌」, 『唐代墓誌彙編』咸亨063, 554쪽, “君諱大隱, 字朝, 河南人也。……貞觀之日, 有事遼陽, 選百勝之威雄, 占三河之勁勇。君乃棄文士之筆, 挺壯夫之劍, 舞戟交前, 方驗一身之膽; 楊桴直指, 仍懾九夷之氣。勳勳上柱國, 賞物五百段。” 「楊大隱墓誌」의 “貞觀之日, 有事遼陽”은 645년 高唐 전쟁을 가리키며, 楊大隱이 책을 버리고 전쟁에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전쟁 후에 上柱國에만 임명된 것을 보면 職事官에 임명되지 않았고 사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21) 「高感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永隆001, 246쪽, “字敏, 渤海人也。……望紫關以對口, 屬玄夷而鼓孽。君乃風情直上, 壯氣橫秋, 占募九都, 義陪運伍, 於是荷吳戈而入壘, 袪沴霜銷; 提豐劍以排營, 妖氣星落。嶺雲朝散, 破數陣於狼川; 邊月曉沉, 頽幾城於兔壤。既而風夷載靜, 天陣方旋, 勳錫榮班, 功標厚賞。至貞觀廿年四月五日,

전에 종군하였다. 牛高도 이때 모병에 의해 종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²⁾ 이 10만 명의 모병(征人)은 이적과 당 태종의 군대에 나뉘어 편제되었을 것이다.

나. 蘭·河 2州 降胡

선행연구에서 蘭州와 河州를 羈縻州의 약칭으로 보아 執失思力, 契必何力, 阿史那彌射, 阿史那思摩(李思摩), 阿史那忠, 麴智盛 등 唐에 정복된 突厥과 高昌 세력으로 추정하였다.²³⁾ 그러나 唐代뿐만 아니라 唐代 이전을 다룬 史書를 검토하면 蘭·河 2州 降胡의 種族 등을 파악할 수 있다.

『唐六典』 「尙書兵部」 兵部郎中·員外郎條에 秦·成·岷·渭·河·蘭 6州에 高麗·羌兵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앞에 關內團結兵, 뒤에 黎·雅·邛·翼·茂 5州의 鎮防團結兵이 있었다는 구절이 있다.²⁴⁾ 따라서 秦·成·岷·渭·河·蘭 6州의 高麗兵과 羌兵은 武周 시대에 처음 설치된 團結兵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즉 高麗兵이 高句麗가 망한 후 이 6州 일대로 遷徙된 高句麗 遺

授勳上騎都尉, 仍賜物三百段.” “占募九都”는 兵募 보여주며 그 이전에 벼슬이 없는 것을 보면 高感은 사졸로 종군했음을 알 수 있다.

- 22) 『牛高墓誌』, 『唐代墓誌彙編』 萬歲通天001, 889쪽, “君阡里之姿天縱, 參端之性自然, 但以年甫韶齒, 隋運道銷, 志學未登, 羣雄逐鹿, 負戈擊羽, 勇擊參韓, 投募從征, 翦俘獻捷, 蒙授上柱國. …… 以永淳元年貳月貳拾捌日寢疾, 終於家第, 春秋伍拾有玖.” 『牛高墓誌』 가운데 “勇擊參韓, 投募從征”의 ‘參韓’은 ‘三韓’인데, 高句麗를 지칭한다. 牛高는 永淳元年(682) 59세에 죽었으므로 624년에 태어났다. 志學, 즉 15세 이후에 高句麗와의 전쟁에 참전했으므로 645년 전쟁에 참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3) 이호재, 「7세기 東突厥系 蕃將과 蕃兵의 활동-麗唐戰爭 시기 활동을 중심으로-」, 187-195쪽.
- 24) 『唐六典』 卷5 「尙書兵部」 兵部郎中條, 157쪽, “秦·成·岷·渭·河·蘭六州有高麗·羌兵. 黎·雅·邛·翼·茂五州有鎮防團結兵.”
- 25) 楊希義·于汝波, 『唐代軍事史』上, 140쪽.

민으로 구성된 병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蘭·河 2州 降胡에서 高句麗 군사를 빼야 한다. 羌人도 高句麗 遺民처럼 타지에서 遷徙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羌人은 團結兵 설치와 高句麗 멸망 이전부터 이 지역에 있었다. 西魏 大統 4년(538) 濁水羌의 반란 기사²⁶⁾에서 秦州에 羌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北周 大成元年(579) 이전에 尉遲運이 秦州總管에 임명되었을 때 秦州에 華戎, 즉 漢人과 이민족이 각각 절반씩 거주하였고 풍속이 달랐다.²⁷⁾ 『元和郡縣圖志』에 따르면 蘭州는 예전에 西羌의 땅이었으며 十六國時代에 西秦의 乞伏乾歸와 南涼의 禿發烏孤가 수도로 정했던 곳이었다. 隋 開皇元年(581)과 唐 武德 2년(619)에 蘭州가 설치되었다.²⁸⁾ 河州도 西羌의 땅이었고 後晉의 乞伏熾磐이 수도로 정했던 지역이었으며 北魏가 枹罕鎮을 설치했던 지역이었다.²⁹⁾ 蘭州와 河州에 羌·鮮卑 등 이민족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北周 시대 河州와 渭州 사이에 間種羌이 반란을 일으켰었고 王德이 河州刺史가 된 후 羣羌이 복종했던 기사가 있다.³⁰⁾ 여기에서 河州와 渭州 일대에 羌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北周가 막 건국했을 때 閻慶이 河州刺史에 임명

26) 『周書』 卷49 「異域上·宕昌羌傳」, 893쪽.

27) 「尉遲運墓誌」, 『新出魏晉南北朝墓誌疏證』(羅新·葉煒, 北京: 中華書局, 2005), 305쪽, “俄授秦·渭·成·康·文·武六州諸軍事, 秦州總管. 此州華戎相半, 風俗不一, 雖異空祠之武, 頗有強梁之氣. 公濟寬持猛, 遠服邇安, 開懷納胡, 舉袖化狄, 千里聞風, 百城解印.”

28) 『元和郡縣圖志』(李吉甫 撰, 賀次君 點校, 北京: 中華書局, 2005) 卷39 「隴右道」上 蘭州條, 986-987쪽, “禹貢雍州之域. 古西羌地也. …… 西秦乞伏朝歸都苑川, 南涼禿發烏孤都廣武, 皆此地也. 隋開皇元年立為蘭州, 置總管府, 取皋蘭山以為名. 大業三年罷州, 為金城郡. 武德二年討平薛舉, 複置蘭州, 八年置都督府.”

29) 『元和郡縣圖志』 卷39 「隴右道」上 河州條, 988-989쪽, “禹貢雍州之域. 古西羌地也. …… 後乞伏熾磐, 又自金城郡都於此. 後魏平定秦隴西, 改置枹罕鎮. 孝文帝太和十六年, 改鎮複為河州. 隋大業三年罷州, 改為枹罕郡. 武德二年討平李軌, 改置河州.”

30) 『周書』 卷17 「王德傳」, 286쪽.

되었을 때 河州는 戎夷와 접하는 지역이었다.³¹⁾ ‘戎夷’라는 용어에서 河州에 다양한 이민족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唐代에도 蘭州와 河州에 羌人을 비롯한 非漢族 이민족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岷州도 西羌이 살던 지역이었고 隋 開皇 3년과 義寧 2년 岷州로 개칭하였다.³²⁾ 西魏 大統 7년(541)에 獨孤信과 梁椿이 岷州刺史 赤水蕃王 梁岷定の 난을 평정하였다.³³⁾ 『周書』 「梁椿傳」에 梁岷定을 ‘岷州羌’으로 표기하였다.³⁴⁾ 따라서 梁岷定은 羌人이었고 岷州에 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北周 明帝 초기에 元定이 岷州刺史가 되어 羌豪를 회유하였고 羌人들이 山谷에서 나와서 이들로부터 賦를 징수할 수 있었다.³⁵⁾ 郭彥은 宇文貴와 함께 岷州 羌酋 傍乞鐵勿과 鄭五醜 등의 반란을 토벌하였다.³⁶⁾ 이 두 예에서 岷州에 羌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唐後期인 上元 2년에 羌의 반란으로 西蕃, 즉 吐蕃에 점령되었다.³⁷⁾ 이 『元和郡縣圖志』의 기록에서 西魏·北周時代 岷州에 살았던 羌이 唐後期까지 같은 곳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岷州의 예에서 西魏北周時代에 羌이 거주했던 秦州·河州·蘭州 등지에 唐代에도 羌이 거주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唐六典』에 보이는 秦·成·岷·渭·河·蘭 6州의 羌兵은 北朝時代 後期부터 이곳에 살았던 羌人을 군인으로 편제했음이 분명하다. 降胡는 단순히 항복한 이민족뿐만 아니라 정복된 이민족도 포함하므로 唐太宗의 高句麗 침략 당시 蘭·河 2州 降胡 가운데 唐에 복

31) 『周書』 卷20 「閭慶傳」, 343쪽.

32) 『元和郡縣圖志』 卷39 「隴右道」上 岷州條, 995쪽, “禹貢雍州之域. 古西羌地也. …… 隋開皇三年罷郡, 屬岷州, 大業三年復為臨洮郡. 隋末淪陷寇賊, 義寧二年改置岷州, 天寶元年改為和政郡. 乾元元年復為岷州.”

33) 『周書』 卷16 「獨孤信傳」, 266쪽.

34) 『周書』 卷27 「梁椿傳」, 451쪽.

35) 『周書』 卷34 「元定傳」, 589쪽.

36) 『周書』 卷37 「郭彥傳」, 667쪽; 『周書』 卷19 「宇文貴傳」, 313쪽.

37) 『元和郡縣圖志』 卷39 「隴右道」上 岷州條, 995쪽, “上元二年因羌叛, 陷於西蕃.”

속했던 羌이 포함되었음은 분명하다. 즉 秦·成·岷·渭·河·蘭 6州的 羌人 가운데 일부가 高句麗 원정에 동원되었을 것이다.

3. 唐太宗의 직할부대

645년 唐太宗의 고구려 침공 당시 육군의 중추는 李勣의 병사와 唐太宗이 지휘한 군대였다. 唐太宗이 친히 지휘한 병사를 알 수 있는 대목이 『冊府元龜』에 보인다.

“[五月] 庚辰日(6. 12)에 車駕는 遼澤에 이르렀다. 丙子日(6. 8)에 군사는 臨遼頓에 머물렀다. 그날 밤에 遼水의 수위가 3尺이 줄었는데, 三軍은 하늘의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丁丑日(6. 9)에 車駕는 요수를 건넜고 橋梁을 치워 士卒의 마음을 굳건히 하였다. 甲士 6萬으로 馬首山에 진을 쳤다.”³⁸⁾

위의 인용문에서 遼澤에 도착한 날짜보다 臨遼頓에 머무른 날짜가 빠르다. 『冊府元龜』의 날짜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唐太宗의 군사들은 臨遼頓→遼水→馬首山→遼澤을 거쳐 高句麗 땅에 도착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우선 馬首山에 진을 친 병사가 6만 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唐太宗이 거느린 병사를 三軍이라고 표현하였지만, 『舊唐書』 「高麗傳」³⁹⁾과 『冊府元龜』 「帝王部」 親征門⁴⁰⁾ 및 好邊功門⁴¹⁾에서 六軍이라고 표기하였다.

38)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0쪽, “[五月]庚辰, 車駕次遼澤. 丙子, 師次臨遼頓. 其夕, 遼水減三尺, 三軍慶悅以為得天之助. 丁丑, 車駕渡遼, 撤橋梁以堅士卒之心. 甲士六萬營於馬首山.”

39) 『舊唐書』 卷199上 「東夷·高麗傳」, 5322-5323쪽.

40)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쪽, “唐太宗貞觀十八年十月, 帝欲親

三軍과 六軍을 3개의 軍과 6개의 軍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⁴²⁾ 三軍은 전군의 총칭이고, 六軍은 禁軍 또는 天子(皇帝)가 거느린 군대를 가리킨다. 따라서 甲士, 三軍, 六軍이라는 표현만으로 唐太宗의 직할부대 兵種과 병사의 수를 알 수 없다. 安市城을 공격하는 唐의 배치와 지휘 사항이 기록된 『唐大詔令集』의 破高麗 賜酺詔에 李勣이 14명의 總管을, 長孫無忌가 26명의 總管을 각각 거느렸다고 기록하였다.⁴³⁾ 長孫無忌는 太宗이 定州를 떠날 때 함께 따라갔으므로⁴⁴⁾ 太宗의 직할부대에서 종군하였다. 한 학자는 長孫無忌가 지휘한 군대를 太宗의 직속부대로 파악하고 楊弘禮가 駐蹕山の 전투에서 지휘한 步騎 24軍⁴⁵⁾을 합하여 太宗이 50명의 總管을 거느렸다고 추정하고 總管이 지휘하는 1軍 병력을 최소 1만으로 보았다.⁴⁶⁾ 이 주장에 따르면 太宗의 직할 부대는 최소 50만 명이다. 『唐六典』에 지방의 軍과 鎮에 병사 5천 명에 總管 1명, 1천 명마다 子總管 1명을 두는 규정이 있다.⁴⁷⁾ 이는 玄宗 시기 節度使를 설치한 이후의 규정으로 보이는

總六軍, 以度遼海. 進封事者皆勸遣將, 不宜親行.”

- 41) 『冊府元龜』卷135 「帝王部」135 好邊功 唐太宗貞觀十八年二月條, 1503쪽, “十九年, 命刑部尚書張亮為平壤道行軍大總管, 領將常何等率江·淮·嶺·硤勁卒四萬, 戰船五百艘, 自莢州汎海迤平壤; 又以特進英國公李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 禮部尚書江夏王道宗為副, 領將軍張士貴等率步騎六萬趨遼東; 兩軍合勢, 太宗親御六軍以會之.”
- 42) 唐代 皇帝의 北衙六軍이 있었지만 安史의 난 이후 左右神武軍을 설치하며 기존의 군대와 합쳐 六軍이라 불렀다(『新唐書』卷50 「兵志」, 1331쪽). 따라서 唐太宗 시기와 관계없다.
- 43) 『唐大詔令集』(宋敏求 編, 北京: 中華書局, 2008) 卷130 「平亂」 破高麗賜酺詔條, 708-709쪽, “行軍大總管李勣率總管虢國公張士貴等馬步軍十四總管, 當其西南面. 又命趙國公無忌, 率馬步軍二十六總管, 馳自東谷. 合其來道; 抵背扼喉, 塞其歸路.”
- 44) 『資治通鑑』卷197 「唐紀」13 唐太宗貞觀十九年三月條, 6218쪽.
- 45) 『舊唐書』卷77 「楊纂傳附族子弘禮傳」, 2674쪽; 『新唐書』卷106 「楊弘禮傳」, 4045쪽.
- 46) 김용만,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2003, 376-381쪽.
- 47) 『唐六典』卷5 「尚書兵部」兵部郎中條, 158-159쪽, “凡鎮皆有使一人, 副使一人, 萬人已上置司馬·倉曹. 兵曹參軍各一人; 五千人已上, 減司馬. 凡諸軍·鎮每五百

데, 軍과 鎮은 節度使 설치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변경 軍과 鎮의 편제가 전쟁 때와 동일했다고 가정하면 50명의 總管이 지휘한 군대는 25만 명이다. 그러나 長孫無忌와 楊弘禮가 太宗을 따라간 것은 맞지만, 安市城 전투 당시 太宗이 직접 지휘했으므로 李勣과 太宗의 부대를 별개로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長孫無忌와 楊弘禮가 지휘한 부대를 太宗의 직할부대로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太宗 직할부대의 최대 병력은 25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다만 唐太宗의 측근인 친위부대가 참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新唐書』 「兵志」에 따르면, 唐代 禁軍은 南衛와 北衛로 나뉘는데 南衛는 諸衛 折衝府 衛士이고 北衛는 禁軍이었다.⁴⁸⁾ 南衛는 宰相이 관장하였고 北衛는 皇帝의 親信인 中官이 관할하였다. 근무 장소도 달라서 南衛, 즉 諸衛는 궁 남쪽, 즉 長安 太極宮 앞 朱雀門 안에 주둔하였다. 北衛, 즉 禁兵은 禁苑 안에 있었다. 南衛는 文臣이 兵事를 주관하며 宰相이 거느리며 칙서를 받들어 武臣과 군대를 調遣할 수 있었다. 北衛는 武臣이 兵事를 주관하며 宰相이 참여할 수 없으며 皇帝가 직접 지휘하였다.⁴⁹⁾ 北衛禁軍은 高祖 李淵이 太原에서 군대를 일으킬 때 데려온 6만 가운데 關中에 남아 宿衛를 맡았던 3만 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渭水 북쪽의 白渠 곁의 땅을 지급받았으며 元從禁軍이라 불렀다. 이들이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子弟로 대체하여 세습이 가능했기 때문에 父子軍이라고 불렀다. 太宗은 활쏘기를 잘하는 100명을 뽑아 2개의 번으로 나누어 北門에 주둔하도록 했는데 百騎라고 불렀으며, 唐太宗의 사냥을 따라다녔다. 또 北衛에 七

人置押官一人, 一千人置子總管一人, 五千人置總管一人. 凡諸軍·鎮使, 副使已上皆四年一替, 總管已上六年一替, 押官隨兵交替.”

48) 『新唐書』 卷50 「兵志」, 1330쪽.

49)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62, 170-171쪽.

營을 설치하고 材力驍壯한 병사를 뽑았으며 달마다 한 개의營이 番上하였다. 太宗은 貞觀 12년(638)에 玄武門에 左右屯營을 설치했는데 이를 飛騎라고 불렀다.⁵⁰⁾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탈취한 太宗이 軍權의 장악과 신변 경호를 위해 飛騎와 百騎를 지휘·통솔했을 것이다.⁵¹⁾ 지금까지 唐太宗이 高句麗 침략 이전 北衙禁軍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는데, 元從禁軍, 百騎, 七營, 左右屯營의 병사가 645년 唐太宗의 직할부대에 종군했을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舊唐書』 「王及善傳」과 「斛斯正則墓誌」에 있다. 王及善은 645년 高唐 전쟁 전에 左武衛將軍이었는데, 전쟁 때 左右屯營의 병마를 거느렸다.⁵²⁾ 左右屯營은 貞觀初에 활을 잘 쏘는 자 100명을 2번으로 나누어 北門에 주둔하게 하며 百騎라고 불렀다. 또 北衙七營을 두었고 貞觀 12년에 玄武門에 左右屯營을 두고 諸衛將軍에게 지휘하도록 하였는데 ‘飛騎’라고 불렀다.⁵³⁾ 王及善이 飛騎라고 불린 左右屯營을 거느리고 참전한 것

50) 『新唐書』 卷50 「兵志」, 1330-1331쪽. 『唐會要』에서 百騎, 飛騎 등의 친위군을 羽林軍으로 분류하였다. 唐太宗 시기에 羽林軍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나 武周 시대인 垂拱元年(685)에 羽林軍이 설치되었다(『唐會要』 卷72 京城諸軍·羽林軍條, 1529-1533쪽).

51) 林美希, 「唐代前期宮廷政變をめぐる北衙の動向」, 『史觀』 164, 2011, 47~64쪽; 同氏, 「唐·左右龍武軍の盛衰 : 唐元功臣とその後の禁軍」, 『史滴』 33, 2011, 111-138쪽; 同氏, 「唐代前期における北衙禁軍の展開と宮廷政變」, 『史學雜誌』 121-7, 2012, 1247-1272쪽; 同氏, 「唐前半期の閑厩体制と北衙禁軍」, 『東洋學報 : 東洋文庫和文紀要』 94-4, 2013, 345-373쪽; 平田陽一郎, 「皇帝と奴官-唐代皇帝親衛兵組織における人的結合の一側面-」, 『隋唐帝國形成期における軍事と外交』, 汲古書院, 2021(原載 「北朝後期における皇帝親衛兵の系譜-二十四軍から「禁軍」へ-」, 「中國中世(中古)社會諸形態」國際大學院生若手研究者學術交流論壇, 明治大學, 2014; 「皇帝と奴官-唐代皇帝親衛兵組織における人的結合の一側面-」, 『史滴』 36, 2014), 420-421쪽.

52) 『舊唐書』 卷90 「王及善傳」, 2909쪽, “頻以戰功封新興縣公, 累遷左武衛將軍. 從太宗征遼東, 兼領左屯營兵馬, 與高麗戰於鴻臚山, 君愕先鋒陷陣, 力戰而死.”

53) 『新唐書』 卷50 「兵志」, 1330-1331쪽, “及貞觀初, 太宗擇善射者百人, 為二番於北門長上, 曰「百騎」, 以從田獵. 又置北衙七營, 選材力驍壯, 月以一營番上. 十二年, 始置左右屯營於玄武門, 領以諸衛將軍, 號「飛騎」. 其法: 取戶二等以上·長六尺闊

은 北衙禁軍의 일부인 左右屯營의 병사들이 645년 전쟁에 참전했음을 보여준다. 斛斯正則은 貞觀 18년(644) 太宗의 洛陽宮 방문을 따라갔으며 태종의 명령으로 百騎를 거느리고 六軍에 참가하였고 高句麗와의 전투에서 공을 세워 右監門中郎將에 제수되고 上柱國이라는 勳官을 받았다.⁵⁴⁾ 斛斯正則의 사례에서 北衙禁軍인 百騎가 645년 전쟁에 종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당서』 「고려전」에서 태종이 1만여 명의 甲騎, 즉 갑옷을 입은 기병을 지휘하고 이적과 만나 요동성을 포위했다는 기록에서⁵⁵⁾ 태종의 직할 부대에 甲騎 1만여 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冊府元龜』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太宗이 貞觀 19년 五月 丁丑日(645. 6. 9)에 遼水를 건넜고 甲申日(645. 6. 16)에 친히 鐵騎를 이끌고 李勣의 병사와 만나 遼東城을 포위하였다.⁵⁶⁾ 『冊府元龜』의 기사에서 太宗의 직할부대에 鐵騎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太宗의 동선을 보면 太宗이 지휘한 직할부대 전체가 鐵騎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遼水를 건넌 후에 먼저 鐵騎만 거느리고 李勣의 부대와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 ‘鐵騎’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鐵甲을 입은 騎兵이며, 중무장 기병으로 추정된다. 중무장 기병의 기동력은 논외로 하더라도 皇帝인 太宗이 지휘하는 친위부대의 기병 일부가 완벽히 무장하고 太宗을 지키고 동시에 전쟁에서 싸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甲騎 또는 鐵騎 이외에 騎兵은 突厥 출신 유목민 阿史那社尒

壯者，試弓馬四次上·翹關舉五·負米五斛行三十步者。復擇馬射為百騎，衣五色袍，乘六閑駁馬，虎皮韉，為游幸翊衛。”

54) 「斛斯正則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周紹良·趙超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咸亨005, 187쪽, “十八年, 從幸洛陽宮。仍屬烏夷侍嶮, 狼顧不賓。即從龍鷹, 恭聞豹略。有敕令統百騎, 以參六軍。公乃鬻勇前驅, 爭鳴鸞寇。既成功於拉朽, 且命賞以疇庸, 即以勳授右監門中郎將, 累加上柱國。”

55) 『舊唐書』 卷199上 「東夷·高麗傳」, 5323쪽.

56) 『舊唐書』 卷3 「太宗紀」下 貞觀十九年五月條, 57쪽.

와 阿史那思摩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阿史那社尒는 高昌 평정 이후 檢校北門左屯營에 임명되었다. 그는 645년 高唐 전쟁에 참전하여 화살에 맞고도 싸웠고 그의 부하들도 용맹하여 공을 세웠다.⁵⁷⁾ 北門左屯營은 北衙禁軍에 해당했으므로, 阿史那社尒와 그의 부하들은 唐太宗을 호위하는 일을 맡음과 동시에 唐太宗의 직할 부대에 속했을 것이다. 묘지명에 따르면, 阿史那思摩(李思摩)도 右衛將軍에 임명되어 蕃兵을 거느리고 白崖城을 공격하다가 화살에 맞았다. 태종은 친히 약을 전해 주었다.⁵⁸⁾ 이때 태종이 화살에 맞은 阿史那思摩의 상처의 피를 빨았다고 한다.⁵⁹⁾ 태종의 간호는 그가 태종의 직할부대에서 종군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玄武門의 변 때 활약⁶⁰⁾한 尉遲敬德도 종군하였다. 貞觀 17년(643) 벼슬을 관두고 開府儀同三司라는 명예직을 받고 한 달에 두 번 조회에 참여하던⁶¹⁾ 그는 太宗의 高句麗 침략을 반대하였다. 太宗은 그의 간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行太常卿의 벼슬을 주고 左一馬軍總管에 임명하였다. 이에 그는 645년 駐蹕山 전투에 참전하였다.⁶²⁾ 『舊唐書』와 『新唐書』 「尉遲敬德傳」에서 그가

57) 『舊唐書』 卷109 「阿史那社尒傳」, 3289쪽.

58) 「李思摩(阿史那思摩)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 貞觀050, 38쪽, “十三年, 改授乙彌泥孰可汗, 率部落歸於黃河之北. 既襲廣大之號, 還膺拜日之尊. 顧眄則右賢風從, 抑揚則左將雲會. 十八年, 其種部搞離, 稍自歸於河南勝州等界, 公歸罪於洛陽宮. 從駕東行, 在道蒙授右衛將軍, 仍領蕃兵度遼. 攻白崖城, 爲流矢所中, 主上親觀傳藥, 恩越等夷.”; 「大唐故右武衛大將軍贈兵部尚書諡曰順李君(李思摩)墓誌銘」, 『全唐文新編』 20(周紹良 主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0), 13835쪽.

59) 『舊唐書』 卷194下 「突厥下·阿史那思摩傳」, 5165쪽.

60) 尉遲敬德은 玄武門의 變 당시 齊王 元吉을 화살로 쏘아 죽이고 建成과 元吉의 목을 내걸어 그들의 부하들이 흩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海池에서 뱃놀이하는 高祖를 侍衛하며 高祖에게 李世民的 쿠데타를 설득시켜 高祖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舊唐書』 卷68 「尉遲敬德傳」, 2495쪽; 『新唐書』 卷89 「尉遲敬德傳」, 3754쪽).

61) 『舊唐書』 卷68 「尉遲敬德傳」, 2500쪽; 『新唐書』 卷89 「尉遲敬德傳」, 3754쪽.

62) 『舊唐書』 卷68 「尉遲敬德傳」, 2500쪽; 『新唐書』 卷89 「尉遲敬德傳」, 3755쪽.

李勣과 太宗의 부대 가운데 어느 곳에 속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資治通鑑』에서 尉遲敬德의 上言과 左一馬軍總管 임명 시기가 貞觀 19년 二月 乙卯日(645. 3. 19)이며 당시 太宗의 부대가 洛陽에서 출발할 때였다고 기록하였다.⁶³⁾ 尉遲敬德이 직접 太宗에게 말하고 太宗이 바로 左一馬軍總管에 임명했으므로 太宗의 직할부대에 소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같은 달에 李勣(李世勣)의 군대는 이미 幽州에 도착하였다.⁶⁴⁾ 胡三省注에 따르면 洛陽과 幽州의 거리는 1,600里인데,⁶⁵⁾ 李勣의 군대가 하루에 90里씩 행군하면 약 18일, 60里씩 행군하면 약 27일이나 걸린다. 만약 尉遲敬德이 李勣의 부대에 소속되었다면 이미 幽州에 도착한 李勣의 부대에 합류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尉遲敬德이 太宗의 직할부대에 속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가 제수 받은 左一馬軍總管의 관직을 보면, 그는 기병을 지휘했음을 알 수 있다.⁶⁶⁾

이밖에 李勣의 군대처럼 折衝府 衛士와 征人(兵募)들도 唐太宗의 직할부대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사서에 衛士와 征人の 수를 기록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수를 파악할 수 없다.

63) 『資治通鑑』卷197「唐紀」13 唐太宗貞觀十九年二月乙卯條, 6217쪽. 이 앞에 太宗이 洛陽에서 출발했다고 기록하였다(『資治通鑑』卷197「唐紀」13 唐太宗貞觀十九年二月條, 6217쪽).

64) 『資治通鑑』卷197「唐紀」13 唐太宗貞觀十九年二月條, 6217쪽.

65) 『資治通鑑』卷197「唐紀」13 唐太宗貞觀十九年二月條胡註, 6217쪽.

66) 『舊唐書』와 『新唐書』에서 尉遲敬德이 太常卿을 겸한 이유를 쓰지 않았는데, 親征高麗詔에 따르면 尉遲敬德은 黃門의 軍樂을 거느리고 遼東城 공격 때 음악을 연주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돋구었다(『唐大詔令集』卷130「平亂」親征高麗詔條, 708쪽, “總萃遼東之城, 攻其南面. …… 又命檢校太常卿鄂國公敬德, 領黃門之軍樂, 奏玄雲之雅歌. 將帥聞而增憤, 士卒繇其作氣.”).

4. 張亮의 水軍

史書마다 唐에서 출발한 水軍의 수가 다르다. 『舊唐書』 「高麗傳」에서 平壤道行軍大總管에 임명된 張亮이 江·淮·嶺·硤 勁卒 4萬과 戰船 500艘을 거느리고 萊州를 출발했다고 기록하였다.⁶⁷⁾ 『新唐書』 「高麗傳」에서도 張亮이 거느린 水軍과 戰船의 수는 같지만 군사는 江·吳·京·洛에서 모병한 군사라고 기록하였다.⁶⁸⁾ 반면 『冊府元龜』 「帝王部」 親征門과 『資治通鑑』에서 江·淮·嶺·硤 勁卒 4萬과 長安·洛陽에서 召募한 3천을 거느렸다고 기록하였다.⁶⁹⁾ 네 史書에 기록된 수군의 수인 4만과 4만 3천은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高麗傳」에 기록된 張亮의 水軍 7만⁷⁰⁾과 차이가 크다. 645년 唐太宗의 高句麗 침략 당시 唐兵의 병력수는 史書마다 다르고 같은 史書에서도 다른 것처럼 수군 총수도 달랐다. 이는 이 전쟁을 기록한 원시 사료가 서로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⁷¹⁾

『冊府元龜』에 수군 총사령관 張亮이 거느린 주요 무관이 열거되었다. 左領軍將軍 武水縣伯 常何와 瀘州都督 戴國公 左難當이 副總管, 汾州刺史 黃國公 冉仁德, 眉州刺史 下傳縣男 劉英, 銀青光祿大夫 行撫州刺史 張文翰, 雲麾將軍 行中郎將 龐孝恭, 右驍衛

67) 『舊唐書』 卷199上 「東夷·高麗傳」, 5322-5323쪽.

68)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89쪽.

69)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쪽; 『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太宗貞觀十八年十一月條, 6214쪽.

70) 『唐會要』 卷95 「高句麗傳」, 2021쪽;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3쪽;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4쪽, “船師七萬, 物故亦數百.”

71) 최진열,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병력」, 137-145쪽.

將軍 東平郡公 程名振이 行軍總管이었다.⁷²⁾ 『新唐書』 「高麗傳」에서 현직 관명이 생략되었고 張亮(平壤道行軍大總管) 아래 常何와 左難當(副總管), 冉仁德, 劉英行, 張文幹, 龐孝泰, 程名振(總管)이 열거되었다.⁷³⁾ 두 기록을 보면 張文翰과 張文幹, 劉英과 劉英行, 龐孝恭과 龐孝泰 등 일부 將領 이름이 다르다. 이들의 본적을 살펴보면, 張亮이 鄭州 滎陽縣,⁷⁴⁾ 常何が 汴州 浚儀縣,⁷⁵⁾ 左難當이 宣州,⁷⁶⁾ 龐孝泰는 白州 출신의 蠻酋,⁷⁷⁾ 程名振은 洺州 平恩縣⁷⁸⁾이었다. 冉仁德과 劉英(劉英行), 張文幹은 『舊唐書』와 『新唐書』에 열전이 없어서 본적을 확인할 수 없다. 張亮과 常何, 程名振은 黃河 유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水戰에 익숙하지 않았다. 반면 左難當과 龐孝泰는 長江 또는 바다와 가까운 지역 출신이었고 그런 곳에서 활동하였다.

左難當의 본적인 宣州는 長江 중류에 위치하였다. 그는 武德 연간에 獻·池·徽 3總管이 되었으며 당에 귀순하여 宣州都督에 임명되고 上柱國으로 승진하고 戴國公에 봉해졌다.⁷⁹⁾ 貞觀初에 江州刺史로 근무할 때 靜江大使에 임명되어 長江의 도적을 토벌하였다.⁸⁰⁾ 그리고 行軍總管에 임명되기 전에 瀘州都督이었다. 瀘州는 長江 상류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이력을 살펴보면, 左難當은 長江 유역의 지방관을 역임하였고 長江 도적 토벌에 성공

72)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쪽.

73)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89쪽.

74) 『舊唐書』 卷69 「張亮傳」, 2514쪽; 『新唐書』 卷94 「張亮傳」, 3828쪽.

75) 「大唐故使持節都督黔思費等十六州諸軍事黔州刺史贈左武衛大將軍上柱國武水縣開國伯常府君之碑(常何墓誌)」, 『全唐文補遺』 第七輯(吳鋼 主編, 西安: 三秦出版社, 2000), 5아래쪽.

76) 『冊府元龜』 卷373 「將帥部」, 34 忠4 左難當條, 4226쪽.

77) 『舊唐書』 卷82 「許敬宗傳」, 2764쪽.

78) 『舊唐書』 卷83 「程務挺傳」, 2784쪽.

79) 『冊府元龜』 卷373 「將帥部」, 34 忠4 左難當條, 4226쪽.

80) 『冊府元龜』 卷695 「牧守部」, 25 屏盜·左難當條, 8024쪽.

할 정도로 水戰에도 능한 인물이었다.

『冊府元龜』에 표기된 龐孝恭⁸¹⁾은 龐孝泰의 오기이다. 龐孝泰는 645년뿐만 아니라 660년 백제 멸망 당시 소정방 휘하의 장수로서 나열되었고⁸²⁾ 661-662년 高句麗와의 전쟁에서 전사할 때 참전했으며 당시 직함이 左驍衛將軍 白州刺史 沃沮道總管이었다.⁸³⁾ 그는 武德 6년(623) 이후 662년 전사할 때까지 白州刺史를 역임하였다.⁸⁴⁾ 白州는 嶺南道の 屬州인데, 龐孝泰는 이 지역의 蠻酋로서 항해와 水戰에 익숙했던 것으로 보인다. 662년에 龐孝泰가 『책부원귀』 「장수부」에서 방효태가 거느린 군사가 영남도의 수군이었던다는 기사⁸⁵⁾를 보면 龐孝泰는 수군을 주로 지휘했음을 알 수 있다.

즉 張亮의 副總管과 行軍總管 가운데 左難當과 龐孝泰가 수전에 익숙하였고 나머지 장수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대포가 발명되기 전 해전은 주로 상대방 군함에 승선하여 싸우는 전투 방식이었고 張亮의 병사들이 주로 육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陸戰과 水戰에 각각 능한 무장들을 적절히 배치했다고 볼 수 있다.

張亮이 통솔한 군대에 江·淮·嶺·峽의 勁卒 4만과 戰船 五百艘이 萊州에서 바다로 平壤으로 진격하라는 명령받았다.⁸⁶⁾ ‘江’은 江南道, ‘淮’는 淮南道, ‘嶺’은 嶺南道이며, ‘峽’은 『資治通

81)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쪽.

82)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 31 征討3 顯慶五年三月條, 11411쪽.

83) 『新唐書』 卷3 「高宗紀」 龍朔二年二月戊寅條, 62쪽; 『資治通鑑』 卷200 「唐紀」 16 高宗龍朔二年二月戊寅條, 6327쪽.

84) 武德 6년(623) 南州刺史 龐孝泰가 반란을 일으켰다(『新唐書』 卷1 「高祖紀」 武德六年四月丁卯條, 16쪽). 『舊唐書』 「地理志」에 따르면 白州는 武德 4년(621)에 南州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다가 武德 6년(623)에 白州로 개칭되었다(『舊唐書』 卷41 「地理志」 4 十道郡國4·嶺南道·白州條, 1744쪽) 따라서 龐孝泰는 최소한 武德 6년(623)부터 白州刺史였음을 알 수 있다.

85) 『冊府元龜』 卷373 「將帥部」 34 忠4 龐孝泰條, 4226-4227쪽.

86) 『舊唐書』 卷199上 「東夷·高麗傳」, 5322-5323쪽;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쪽; 『資治通鑑』 卷197 「唐紀」 13 太宗貞觀十八年十一月條, 6214쪽.

鑑』에서 ‘峽’으로 표기되었는데, 胡三省은 ‘峽’이 峽中諸州를 가리키며 夔州·硤州·歸州라고 구체적인 州名을 나열하였다.⁸⁷⁾ 현재의 三峽 일대에 해당한다.

江南道の 折衝府는 5개 또는 7개, 淮南道는 9개 또는 10개, 嶺南道는 6개, 8개, 11개이다.⁸⁸⁾ 구체적으로 江南道の 潤州에 金山府, 越州에 浦陽府, 溫州에 三州府, 福州에 泉山府, 潭州에 長沙府가 있었다. 淮南道の 揚州에 江平府·新林府·方山府·邗江府, 和州에 新川府·香林府, 壽州에 安城府, 蘄州에 蘄川府, 安州에 義安府·寶城府, 楚州에 淮陰府가 있었다. 嶺南道の 廣州에 綏南府·番禺府, 潘州에 潘水府, 邕州에 如和府, 澄州에 上林府, 桂州에 淮南府, 貴州에 龍山府, 龍州에 容山府가 있었다.⁸⁹⁾ 『新唐書』 「地理志」에 따르면 硤中諸州인 夔州·硤州·歸州 3州 가운데 夔州에 東陽이란 이름의 折衝府 1개가 있었고⁹⁰⁾ 峽州(硤州)⁹¹⁾와 歸州⁹²⁾에는 折衝府가 없다. 張沛의 고증에 따르면 峽州에 夷陵府, 夔州에 東陽府(「隋羊君墓誌」, 「唐劉智才墓誌」)가 있었다.⁹³⁾ 『新唐書』 「地理志」의 折衝府 표기에 따르면 勁卒 차출 지역으로 언급된 江·淮·嶺·硤에 있는 折衝府는 모두 22개였다. 여기에 墓誌銘과 造像記, 碑石 등 금석문에서 찾은 安州의 寶城府(淮南道), 邕州의 如和府, 桂州의 淮南府(嶺南道), 峽州의 夷陵府, 夔州의 東陽府 등 4개 折衝府를 포함하면 모두 26개이다. 楊希義·于汝波의 집계에 따르면 23개이다.⁹⁴⁾ 折衝府의 평

87) 『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太宗貞觀十八年十一月條 胡註, 6214쪽.

88)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154쪽, 表1 唐十道折衝府府數比較表; 楊希義·于汝波, 『唐代軍事史』上, 130-133쪽; 張沛, 『唐折衝府匯考』, 23-284쪽.

89) 張沛, 『唐折衝府匯考』, 253-256쪽; 248-252쪽; 263-267쪽.

90) 『新唐書』 卷40 「地理志」4 山南道·東道採訪使·夔州雲安郡條 細注, 1029쪽.

91) 『新唐書』 卷40 「地理志」4 山南道·東道採訪使·峽州夷陵郡條, 1028쪽.

92) 『新唐書』 卷40 「地理志」4 山南道·東道採訪使·歸州巴東郡條, 1028쪽.

93) 張沛, 『唐折衝府匯考』, 219-220쪽.

94) 楊希義·于汝波, 『唐代軍事史』上, 132쪽 및 132-133.

균 군사수를 800명으로 계산하면 江南·淮南·嶺南 3道와 山南道の 三峽 지역 3州의 折衝府 衛士 총수는 약 17,600-20,800명이다. 따라서 張亮이 지휘한 江·淮·嶺·硤의 勁卒 4만 명은 折衝府의 府兵만으로 징집할 수 없었다. 따라서 折衝府의 府兵 이외에도 軍·鎮 등에 주둔한 군사뿐만 아니라 별도로 민간 백성들 가운데 차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折衝府가 없었던 峽州와 歸州에서 민간인을 차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江·淮·嶺·硤의 勁卒은 주로 折衝府 衛士보다 일반인 가운데 召募한 병사들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항해와 수전에 능한 사람들을 주로 선발했을 것이다. 龐孝泰가 662년 嶺南兵을 이끌고 사수에서 고구려군과 싸웠다는 『신당서』 「고려전」 기사⁹⁵⁾를 보면, 이때도 龐孝泰가 嶺南道 일대의 勁卒을 지휘했을 것이다. 瀘州都督 左難當이 근무한 瀘州는 ‘硤’, 즉 山南道の 三峽 지역의 서쪽에 있었고 眉州刺史 劉英(劉英行)의 임지 眉州는 長江 상류의 益州 남쪽에 있었으므로 左難當과 劉英(劉英行)이 三峽 지역의 勁卒의 징집과 통솔을 맡았을 것이다. 行撫州刺史 張文幹의 임지인 撫州는 鄱陽湖 남쪽에 위치했으며 江南道에 속했다. 따라서 張文幹이 江南道の 勁卒을 데리고 출발지인 萊州까지 갔을 것이다.

95)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89쪽.

5. 營州都督 張儉의 군대

雍州 新豐縣 사람인⁹⁶⁾ 張儉은 李靖의 東突厥 정복 때 종군하였고 思結部落을 위무하는데 성공했으며 代州都督에 임명된 후 屯田을 일으키고 和糴을 통해 식량을 배출하는 등 蕃人의 환심을 얻었다.⁹⁷⁾ 「命張儉等征高麗詔」와 『新唐書』 「高麗傳」에 따르면 唐太宗은 貞觀 18년 七月 營州都督 張儉과 守左宗衛率 高履行에게 幽州와 營州 2개 都督府의 兵馬, 契丹·奚·靺鞨의 군사를 거느리고 高句麗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⁹⁸⁾ 張儉이 지휘한 군사가 幽州都督府와 寧州都督府의 唐兵 및 契丹·奚·靺鞨의 이민족 병사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舊唐書』와 『新唐書』 「張儉傳」에서 諸蕃騎卒⁹⁹⁾ 또는 諸蕃騎¹⁰⁰⁾를 지휘했다고 기록하여 「命張儉等征高麗詔」와 『新唐書』 「高麗傳」의 기록과 달리 이민족 군사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양자의 기록이 차이가 있지만 張儉이 營州都督이었기 때문에 幽州와 營州 都督府의 병사들도 지휘했다는 「命張儉等征高麗詔」와 『新唐書』 「高麗傳」의 기사를 신뢰할 수 있다.

먼저 張儉과 高履行이 거느린 幽州都督府와 營州都督府의 군사들을 살펴보자. 貞觀 8년 幽州都督府는 幽·易·燕·北燕·平·

96) 『舊唐書』 卷83 「張儉傳」, 2775쪽.

97) 『舊唐書』 卷83 「張儉傳」, 2775-2776쪽.

98) 『全唐文』(董誥 等編, 北京: 中華書局, 1983) 卷7 太宗4·命張儉等征高麗詔, 85쪽 (卷7의9b-10a), “宜令營州都督張儉·守左宗衛率高履行等, 率幽·營二都督府兵馬, 及契丹·奚·靺鞨往遼東問罪.”;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0쪽.

99) 『舊唐書』 卷83 「張儉傳」, 2776쪽.

100) 『新唐書』 卷111 「張儉傳」, 4133쪽.

檀 6州를 거느렸다.¹⁰¹⁾ 易州에 遂城·安義·脩武·德行·新安·古亭·武遂·長樂·龍水の 9개 折衝府,¹⁰²⁾ 幽州에 呂平·涿城·德聞·潞城·樂上·清化·洪源·良鄉·開福·政和·停驂·柘河·良杜·咸寧의 14개 折衝府,¹⁰³⁾ 平州에 盧龍府의 1개 折衝府,¹⁰⁴⁾ 北燕州(媯州)¹⁰⁵⁾에 密雲·白檀의 2개 折衝府¹⁰⁶⁾가 있었다. 檀州에는 軍·城·鎮·戍 등이 존재했지만 折衝府가 없었다.¹⁰⁷⁾ 薊州는 開元 18년에 幽州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¹⁰⁸⁾ 唐太宗 시기에 幽州에 속했다. 薊州에 漁陽·臨渠의 2개 折衝府가 있었다.¹⁰⁹⁾ 幽州都督府에 속한 折衝府는 28개였다. 范陽(幽州)의 魯泊村에 설치된 玄州¹¹⁰⁾에 昌利府가 있었다.¹¹¹⁾ 羈縻州인 玄州의 折衝府를 포함하면 29개이다. 營州都督府는 營·遼·昌·師·崇·順·慎 7州를 거느렸다.¹¹²⁾

그런데 『新唐書』 「地理志」에는 營州에 折衝府가 없었고 6개의 守捉만 있었다.¹¹³⁾ 營州가 高句麗·奚·契丹·靺鞨 등을 방어하는 동북 변경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折衝府가 없었고 변경의 방어 요새만 있었다. 다만 松漠部落에 설치한 昌州가 營州의 靜蕃戍에 寄治했는데¹¹⁴⁾ 「唐行幽州都督府薊縣令張公(張積善)墓誌」

-
- 101) 『舊唐書』 卷39 「地理志」2 十道郡國2·河北道·幽州大都督府條, 1515쪽.
 102)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採訪使·易州上谷郡條細注, 1019쪽.
 103)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採訪使·幽州范陽郡條細注, 1019쪽.
 104)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採訪使·平州北平郡條細注, 1021쪽.
 105) 北燕州는 貞觀 8년에 媯州로 바뀌었다(『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採訪使·媯州媯川郡條, 1021-1022쪽).
 106)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採訪使·媯州媯川郡條細注, 1021-1022쪽.
 107)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採訪使·檀州密雲郡條細注, 1022쪽.
 108)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採訪使·薊州漁陽郡條, 1022쪽.
 109)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採訪使·薊州漁陽郡條細注, 1022쪽.
 110) 『新唐書』 卷43下 「地理志」7下 羈縻州·河北道·契丹州·玄州條細注, 1126쪽.
 111) 「唐李永宣墓誌」에 昌利府의 명칭이 등장하였다(張沛, 『唐折衝府匯考』, 西安: 三秦出版社, 2003, 216-217쪽).
 112) 『舊唐書』 卷39 「地理志」2 十道郡國2·河北道·營州上都督府條, 1520-1521쪽.
 113)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採訪使·營州柳城郡條細注, 1023쪽.

에 帶方府의 존재가 확인된다.¹¹⁵⁾ 帶方府가 太宗 시기에 있었다면 營州都督府의 관할 아래에 1개의 折衝府가 있었던 셈이다.¹¹⁶⁾ 張儉 등이 지휘한 2개의 都督府에 28개(『新唐書』 「地理志」) 또는 30개(墓誌銘 포함)의 折衝府가 있었는데, 1개의 折衝府의 군인수를 800명이라고 가정하면 약 22,400-24,000명이다. 幽州와 營州 2개 都督府와 이에 속한 州가 북쪽 변경에 위치했기 때문에 방어에 필요한 군인을 남겨놔야 하므로 많은 병사를 데리고 갈 수 없었을 것이다.

張儉이 折衝府 衛士를 동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동원할 수 있는 兵種이 防人이었다. 선행연구에서 防人이 折衝府 衛士가 長安 宿衛와 함께 부담하는 변경 근무라는 병사라고 해석하였다.¹¹⁷⁾ 渡邊信一郎은 「天聖令·賦役令」에 衛士와 다른 防人, 즉 鎮戍兵의 課役 면제 규정에 주목하여 衛士와 다른 軍役 의무였음을 밝혀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唐의 軍役은 長安과 洛陽, 關中, 河東道, 서북 변경을 중심으로 한 府兵의 宿衛 부담 지역과 山東 지역의 편호 농민에게 防人의 변경 수비를 맡기는 부담 지역의 지역적 분담구조로 편성되었다. 唐初 防人制는 山東, 즉 河北道와 河南道를 중핵으로 하는 지방의 백성이 부담하여 매년 十月 一日에 교대하는 1년간 근무하는 변경경비의 軍役

114) 『新唐書』 卷43下 「地理志」7下 羈縻州·河北道·契丹州·昌州條註, 1126-1127쪽.

115) 張沛, 『唐折衝府匯考』, 216쪽.

116) 『新唐書』 「地理志」에 696년 이전 兩蕃의 26州 2府는 모두 營州都督府에 속하였고, 營府에 속한 羈縻府州 수의 40%와 83%에 달하였다(李蓉, 「唐初兩蕃與唐的東北策略」, 『四川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30-2, 2003, 122쪽). 그러나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 당시 아직 契丹과 奚가 唐에 항복하기 전이므로 이 羈縻州가 營州都督府에 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17)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秦漢隋唐史の研究』 上卷; 玉井是博, 「唐代防丁考」, ; 栗原益男, 「府兵制の崩壊と新兵種-前半期唐朝支配の崩壊に関する若干の考察をふくめて(1)-」, 『史學雜誌』 73-2, 1964; 栗原益男, 「府兵制の崩壊と新兵種-前半期唐朝支配の崩壊に関する若干の考察をふくめて(2)-」, 『史學雜誌』 73-3, 1964; 氣賀澤保規, 『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京都 同朋舍, 1999.

이었다.¹¹⁸⁾ 이 주장은 受田을 전제로 租調役을 부과하지만 折衝府가 일부 지역에 偏在된 府兵制의 단점을 보완한다.¹¹⁹⁾ 일부 지역에만 折衝府를 설치한다면 折衝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受田農民들은 軍役을 부담하지 않아서 軍役을 끌고루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防人도 衛士처럼 변경 수비를 담당했다면 折衝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백성들도 軍役을 부담했고 이들이 都督이 지휘하는 지방군이었다는 渡邊信一郎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이는 인구가 많은 河北道에 折衝府가 적어 軍役 부담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防人으로 변경이나 都督府·州에서 복무하여 河北道 백성들도 軍役に 종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防인이 근무하는 鎮戍는 表17 唐代天下鎮戍, 表18 唐代鎮戍組織에 의하면 品官인 鎮將·鎮戍를 主帥로 하는 군사조직이며 邊境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던 뿐만 아니라 內地에도 설치되었다. 開元 연간에 전국에서 245鎮 342戍, 총계 587개이며 약 7만 명이 있었다.¹²⁰⁾ 또 州兵·鎮戍를 관할하는 전국 46개 都督府와 關·津에서도 防인이 배치되었다. 開元 연간에 적어도 십여 만의 防인이 都督府·州·鎮·戍·關·津에 상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都督이 諸州의 兵馬·甲械·城隍·鎮戍·糧稟을 관장했으므로¹²¹⁾ 都督府는 管內의 鎮戍를 統括하고 鎮은 戍를 統括하여 鎮戍에 근무하는 防인의 名籍을 관리하며 그 징발을 담당하였다.¹²²⁾ 邊境

118) 防人は防丁 또는 丁防이라고도 한다. 防人 연구는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 玉井是博, 「唐代防丁考」, ; 張澤咸, 『唐五代賦役史草』, 中華書局, 1986; 渡邊信一郎, 「唐代前期における農民の軍役負擔-歲役の成立によせて-」,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2010(原載 「唐代前期における農民の軍役負擔」, 『京都府立大學學術報告(人文·社會)』 55, 2003, 357-383쪽. 張國剛은 防인이 軍役이 아닌 力役이라고 주장하였다(張國剛, 「唐代防丁制度考述」,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臺北: 文津出版社, 1994, 77-92쪽).

119)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153-158쪽; 楊希義·于汝波, 『唐代軍事史』上, 130-134쪽.

120) 張國剛, 「唐代防丁制度考述」, 1994.

121) 『新唐書』卷49下「百官志」下, 1315쪽.

의 鎭戍나 都督府·州에 주둔한 防人들도 징발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都督은 管內의 鎭·戍·城·守捉 등을 지휘하였고 防人이 주둔하였다. 幽州都督府는 幽·易·燕·北燕·平·檀 6州, 營州都督府는 營·遼·昌·師·崇·順·慎 7州를 관할했으며, 管內에 각각 鎭·戍·城·守捉가 있었다. 예컨대 幽州(都督府)에 經略軍, 納降軍, 安塞軍, 赫連城, 宗王·乾澗·殄寇 3鎭城, 召堆·車坊·蒿城·河旁 4戍,¹²³⁾ 易州에 高陽軍,¹²⁴⁾ 平州에 盧龍軍, 溫溝·白望·西狹石·東狹石·綠疇·米磚·長楊·黃花·紫蒙·白狼·昌黎·遼西 등 12戍, 愛川·周夔 2鎭城, 鶻湖城·牛毛城,¹²⁵⁾ 平州石城縣에 溫昌鎭,¹²⁶⁾ 平州 馬城縣에 茂鄉鎭城,¹²⁷⁾ 媯州에 白陽度·雲治·廣邊 4鎭兵, 橫河·柴城 2戍, 陽門城, 懷柔軍,¹²⁸⁾ 媯州 懷戎縣에 寧武軍, 廣邊軍,¹²⁹⁾ 檀州에 鎭遠軍, 三叉城·橫山城·米城, 大王·北來·保要·鹿固·赤城·邀虜·石子航 7鎭, 臨河·黃崖 2戍,¹³⁰⁾ 檀州 燕樂縣에 東軍·北口 2守捉,¹³¹⁾ 薊州에 雄武軍, 洪水守捉, 鹽城守捉, 古盧龍鎭, 斗陘鎭, 受米城¹³²⁾ 薊州 玉田縣에 壕門·米亭·三谷·礪石·方公·白楊 等 7戍,¹³³⁾ 營州에 燕郡守捉, 渝關守捉, 汝羅·懷遠·巫閭·襄平 4守捉¹³⁴⁾이 있

122) 渡邊信一郎, 「唐代前期賦役制度の再檢討-雜徭を中心に-」,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2010(原載 「唐代前期賦役制度の再檢討」, 『唐代史研究』 11, 2008), 397-398쪽.

123)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探訪使·幽州范陽郡條細注, 1019쪽.

124)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探訪使·易州上谷郡條細注, 1019쪽.

125)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探訪使·平州北平郡條細注, 1021쪽.

126)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探訪使·平州北平郡·石城條細注, 1021쪽.

127)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探訪使·平州北平郡·馬城條細注, 1021쪽.

128)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探訪使·媯州媯川郡條細注, 1021-1022쪽.

129)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探訪使·媯州媯川郡·懷戎條細注, 1022쪽.

130)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探訪使·檀州密雲郡條細注, 1022쪽.

131)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探訪使·檀州密雲郡·燕樂條細注, 1022쪽.

132)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探訪使·薊州漁陽郡條細注, 1022쪽.

133)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探訪使·薊州漁陽郡·玉田條細注, 1022쪽.

134)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北道·河北探訪使·營州柳城郡條細注, 1023쪽.

었다. 즉 幽州와 營州 都督府에 모두 10軍, 20鎮, 27戍, 5城, 10守捉이 있었다. 이 72개 軍·鎮·戍·城·守捉에 주둔한 防人의 일부도 張儉 휘하에서 高句麗 공격에 종군했을 것이다.

전방에서 싸우지 않았지만 幽州와 營州 두 都督府 境內의 역참과 봉수대에 배치된 인력도 있었다. 幽州와 營州 都督府는 중국본토에서 만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驛傳 조직이 존재했고 군량을 수송하는 수송부대가 지나갔다. 唐太宗은 자기의 거처와 太子가 있는 定州까지 烽燧를 설치하여 자신과 太子 사이에 빨리 연락하려고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¹³⁵⁾

唐代 규정에 따르면 30리마다 봉수대(烽堠)를 설치하며, 邊境과 가까우면 城을 쌓아야 했다. 그리고 봉수대에 帥 1명과 副 1명을 두었다.¹³⁶⁾ 30리마다 봉수대를 설치하므로 定州부터 遼河까지 거리를 알면 봉수대의 수를 알 수 있다. 또 『唐六典』에서는 봉수대에 帥 1명과 副 1명을 둔다고 기록했지만¹³⁷⁾ 『武經總要』에서는 烽帥와 烽副 이외에 烽子 6명을 둔다고 기록하였다. 또 邊境에서 用兵할 때 衛兵 5명을 두어 烽城을 지키게 하였다. 衛兵이 없으면 긴장하고 무예에 능한 鄉丁에게 무기를 주어 烽城을 지키도록 하였다.¹³⁸⁾ 따라서 한 봉수대만 관리하는 인원은

135)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1쪽.

136) 『唐六典』 卷5 「尙書兵部」 職方郎中條, 162쪽, “凡烽候所置, 大率相去三十里, 其逼邊境者, 築城以置之. 每烽置帥一人·副一人.” 『武經總要』에서도 30리마다 봉수대(烽) 1개를 설치하는 唐法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武經總要前集』(孫雅芬·于孟晨·賀菊玲·弋丹陽 注, 『武經總要注』, 西安: 西安出版社, 2017) 卷5 制度五·烽火條, 70쪽, “唐法: 凡邊城候望, 每三十里置一烽, 須在山嶺高峻處”).

137) 『唐六典』 卷5 「尙書兵部」 職方郎中條, 162쪽, “每烽置帥一人·副一人.”

138) 『武經總要前集』 卷5 制度五·烽火條, 70-71쪽, “凡掌烽火, 置帥一人, 副一人, 每烽置烽子六人, 並取謹信有家口者充. 副帥往來檢校, 烽子五人分更刻望視, 一人掌送符牒, 並二年一代, 代日須教新人通解, 始得代去. 如邊境用兵時, 更加衛兵五人, 兼守烽城, 無衛兵, 則選鄉丁武健者給仗充.” 『武經總要』는 北宋時代 曾公亮이 편찬하였다(『宋史』 卷207 「藝文志」6 子類三·兵書類, 5283쪽). 唐兵部烽式이라고도 불리는 烽火에 대한 기록은 冒頭에 唐式을 먼저 기록했다고 밝혔다(『武經總

8명, 군사 5명을 포함하면 13명이다. 따라서 幽州와 營州 都督府 管內의 백성들은 봉수를 운영하는 烽帥·烽副·烽子와 衛兵에 동원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張儉이 데리고 갈 병사의 주력은 營州 境內에 거주했던 契丹·奚·靺鞨이었을 것이다. 『舊唐書』 「契丹傳」에 따르면 契丹의 酋帥 孫敖曹가 武德 4년에 靺鞨 酋長 突地稽와 함께 唐에 內附하여 營州城旁에 安置되었다.¹³⁹⁾ 이는 營州에 契丹과 靺鞨이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張儉은 645년에 諸蕃 騎卒(『구당서』)¹⁴⁰⁾ 또는 諸蕃騎(『신당서』)¹⁴¹⁾를 거느리고 참전하였다. 이 기사에서 張儉의 주력 부대가 諸蕃, 즉 이민족 기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諸蕃’에는 營州와 주변에 거주하는 契丹, 奚, 靺鞨이 포함되었었다. 『唐大詔令集』에 실린 親征高麗詔에 “契丹蕃長 於句折과 奚蕃長 蘇支, 燕州刺史 李元正 등은 각각 그 무리를 거느리고 도망갈 길을 끊도록 하라”¹⁴²⁾라는 구절이 있다. 貞觀 2년에 靺鞨의 渠長 阿固郎이 臣附하자 그 땅에 燕州를 설치하였으므로¹⁴³⁾ 燕州刺史 李元正은 阿固郎 또는 그 일족이었을 것이다. 즉 太宗은 契丹, 奚, 靺鞨의 군대를 高句麗 공격에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契丹과 奚는 이때 唐의 영토가 아니었다. 契丹의 우두머리 窟哥와 奚의 우두머리 可度者가 貞觀 22년(648. 12. 13)에 唐에 내속하였다. 이에 唐은 契丹部에 松漠都

要前集』 卷5 制度5·烽火條, 70쪽, “烽燧, 軍中之耳目, 豫備之道, 不可闕也. 唐兵部有烽式, 尤為詳具. 今之邊塞所置, 則頗為簡略而易從. 唐李筌所記法制, 適與今同. 今以唐式錄為前, 而今法次之, 庶參考用焉.”). 따라서 이 기록은 唐代 烽火에 대한 기록임은 분명하다.

139) 『舊唐書』 卷199下 「北狄·契丹傳」, 5350쪽.

140) 『舊唐書』 卷83 「張儉傳」, 2776쪽.

141) 『新唐書』 卷111 「張儉傳」, 4133쪽.

142) 『唐大詔令集』 卷130 「討伐」 親征高麗詔條, 704쪽, “契丹蕃長於句折·奚蕃長蘇支·燕州刺史李元正等, 各率其眾, 絕其走伏.”

143) 『新唐書』 卷219 「北狄·靺鞨傳」, 6178쪽.

督府, 奚部에 饒樂都督府라는 羈縻都督府를 설치하였다.¹⁴⁴⁾ 따라서 당시에 契丹과 奚는 비록 唐에 조공하고 있더라도 唐의 영토는 아니었다. 즉 契丹과 奚의 일부 부족이 唐의 동맹세력으로서 唐太宗의 高句麗 침략에 참전했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본고에서 645년 高唐 전쟁 당시 唐 육군의 兵源과 兵種을 살펴해보았다. 唐前期 군대는 南衙 禁軍인 12衛에 소속된 折衝府의 衛士가 주력이었고, 변방을 지키는 防人和 전쟁 때 召募하는 征人 이 있었다. 이밖에 皇帝의 친위부대인 北衙 禁軍과 突厥 등 유목민 군대(蕃兵)가 있었다. 李勣이 지휘한 부대(遼東道)는 折衝府 衛士와 모병한 征人, 突厥 등 유목민 군사(蕃兵), 羌人 등으로 구성된 蘭·河 2州의 降胡로 구성되었다.

唐太宗이 지휘한 군대는 최소 6만이고 최정예 친위부대인 元從禁軍과 飛騎를 비롯한 北衙禁軍과 折衝府 衛士, 征人, 유목민 군사(蕃兵) 등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張亮이 지휘한 水軍은 기록마다 다르지만 江·淮·嶺·碣의 勁卒 또는 長安·洛陽의 召募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자 지역, 즉 江南·淮南·嶺南 3道와 山南道の 三峽 지역에 분포한 折衝府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정규군인 折衝府 衛士보다 항해와 水戰에 능숙한 일반인을 징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평상시에 대규모의 정규 水軍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江南道와 淮南道, 山南道の 三峽 지역처럼 長江에서 배를 이용해 사는 사람들은 항해와

144) 『舊唐書』 卷3 「太宗紀」下 貞觀二十二年十一月庚子條, 61쪽; 『舊唐書』 卷199下 「北狄·契丹傳」, 5350쪽.

水戰에 익숙했고, 嶺南道도 같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水軍으로 징발하기 유리했을 것이다. 張儉이 지휘한 營州와 幽州 都督府의 折衝府 숫자가 36개 전후였기 때문에 折衝府 衛士 뿐만 아니라 변방의 鎭·戍·城·守捉 등에 주둔하는 防人들도 징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보다 契丹·奚·靺鞨 등 騎兵이 주력이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 『周書』(令狐德棻 撰, 北京: 中華書局, 1971)
- 『舊唐書』(劉昫 等修, 北京: 中華書局, 1975)
- 『新唐書』(歐陽修·宋祁 撰, 北京: 中華書局, 1975)
- 『資治通鑑』(司馬光 編著, 胡三省 音注, 北京: 中華書局, 1956)
- 『冊府元龜』(王欽若 等編纂, 周勛初 等校訂, 南京: 鳳凰出版社, 2006)
- 『唐律疏議』(劉俊文 撰, 『唐律疏議箋解』, 北京: 中華書局, 1996)
- 『唐會要』(王溥 撰,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元和郡縣圖志』(李吉甫 撰, 賀次君 點校, 北京: 中華書局, 2005)
- 『唐六典』(李林甫 等撰, 陳仲夫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92(2005重印))
- 『武經總要前集』(孫雅芬·于孟晨·賀菊玲·弋丹陽 注, 『武經總要注』, 西安: 西安出版社, 2017)
- 『唐大詔令集』(宋敏求 編, 北京: 中華書局, 2008)
- 『新出魏晉南北朝墓誌疏證』(羅新·葉煒, 北京: 中華書局, 2005)
- 『唐代墓誌彙編』(周紹良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 『唐代墓誌彙編續集』(周紹良·趙超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 『全唐文新編』20(周紹良 主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0)
- 『全唐文補遺』第七輯(吳鋼 主編, 西安: 三秦出版社, 2000)
- 『全唐文』(董誥 等編, 北京: 中華書局, 1983)
- 『三國史記』

2. 연구서

• 중문

-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62
- 張澤咸, 『唐五代賦役史草』, 中華書局, 1986
- 張沛, 『唐折衝府匯考』, 西安: 三秦出版社, 2003

3. 연구논문

서영교, 「고구려의 대당전쟁(對唐戰爭)과 내륙아시아 제민족-安市城 전투와 薛延陀-」, 『軍史』 49, 2003

이효재, 「7세기 東突厥系 蕃將과 蕃兵의 활동-麗唐戰爭 시기 활동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5, 2013

최진열,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2012

——,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수-군량수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軍史』 124, 2022: 133-165,
<http://doi.org/10.29212/mh.2022..124.133>

——, 「唐太宗 시기 高唐 전쟁과 선박 제조-제조 인력과 건조 비용의 재정부담 분석을 중심으로-」, 『軍史』 127, 2023: 1-34,
<http://doi.org/10.29212/mh.2023..127.1>

——, 「645년 高唐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東洋史學研究』 167, 2024: 101-160, <http://DOI : 10.17856/jahs.2024.6.167.101>

——, 「645년 高唐 전쟁과 唐兵의 경제적 손실」, 『비교중국연구』 5-2, 2024: 5-32.

唐耕耦, 「唐代前期的兵募」, 『歷史研究』 1981-4, 1981

孫繼民, 「從吐魯番文書所見的行軍制度」, 武漢大學碩士論文, 1984.12

宋娜娜, 「唐與高句麗之戰政治意圖與論戰策略」, 『文化創新比較研究』 4, 2022

楊希義·于汝波, 『唐代軍事史』上(中國軍事通史 第十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8

張國剛, 「關於唐代兵募制度的幾個問題」,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臺北: 文津出版社, 1994

——, 「唐代防丁制度考述」,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臺北: 文津出版社, 1994

曹柳麗, 「隋煬帝·唐太宗征高句麗軍事後勤建設比較研究」,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菊池英夫, 「唐代兵募の性格と名称について」, 『史淵』 67·68, 1956

——,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 『東洋學報』 44-2, 1961

- ,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続編)」, 『東洋學報 : 東洋文庫和文紀要』 45-1) 1962
- 氣賀澤保規, 『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京都: 同朋舎, 1999.
- 大庭脩, 「唐告身の古文書學的研究」, 『唐告身と日本古代の位階制』, 皇學館出版社, 2003
- 渡邊信一郎, 「唐代前期における農民の軍役負擔-歲役の成立によせて-,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2010(原載 「唐代前期における農民の軍役負擔」, 『京都府立大學學術報告(人文・社會)』 55, 2003
- , 「唐代前期賦役制度の再検討-雜徭を中心に-,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2010(原載 「唐代前期賦役制度の再検討」, 『唐代史研究』 11, 2008)
- 濱口重國,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史學雜誌』 41-11・12, 1930(『秦漢隋唐史の研究』 上卷,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0에 수록)
- 玉井是博, 「唐代防丁考」, 『支那社會經濟史研究』, 岩波書店, 1942(原載 池内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刊行會 編, 『池内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座右寶刊行會, 1940)
- 栗原益男, 「府兵制の崩壊と新兵種-前半期唐朝支配の崩壊に関する若干の考察をふくめて(1)-」, 『史學雜誌』 73-2, 1964
- 林美希, 「唐・左右龍武軍の盛衰 : 唐元功臣とその後の禁軍」, 『史滴』 33, 2011
- , 「唐代前期宮廷政變をめぐる北衙の動向」, 『史觀』 164, 2011
- , 「唐代前期における北衙禁軍の展開と宮廷政變」, 『史學雜誌』 121-7, 2012
- , 「唐前半期の閑厩体制と北衙禁軍」, 『東洋學報: 東洋文庫和文紀要』 94-4, 2013
- 齋藤勝, 「唐代内附異民族への賦役規定と邊境社會」, 『史學雜誌』 117-3, 2008
- 平田陽一郎, 「皇帝と奴官-唐代皇帝親衛兵組織における人的結合の一側面-, 『隋唐帝國形成期における軍事と外交』, 汲古書院, 2021(原載 「北朝後期における皇帝親衛兵の系譜-二十四軍から「禁軍」へ-, 「中國中世(中古)社會諸形態」國際大學生若手研究者學術交流論壇, 明治大學, 2014; 「皇帝と奴官-唐代皇帝親衛兵組織における人的結合の一側面-, 『史滴』 36, 2014)

<Abstract>

The Organization of the Tang army during Goguryo-Tang War in 645

Choi, Jin-yeoul

Tang army was commanded by Li Ji, the emperor Taizong, Zhang Liang and Zhang Jian. The Tang army commanded by Li Ji, was composed of zhechong fu weishi, i.e. guarding warrior of intrepid garrison, guard warriors, recruited soldiers, Turks and other nomadic troops, and a surrendered non-Chinese of Lanzhou and Hezhou presumed to be the Qiangs, the Tibetan nomad people. Li Ji commanded nine corps commanders, composed of Three ex-Turks royal family and chieftain, ex-king of Gaochang, five Chinese general including an experienced veteran general called Zhang Shigui and Qiang xingben. The army commanded by Tang Taizong was consisted of the at least 60,000 soldiers including the Praetorian Armies of the Northern Command and other soldiers. The Tang navy commanded by Zhang Liang was composed of a few guarding warriors of intrepid garrison, many recruited soldiers from Jiangnan, Huinan, Lingnan province and San Xia region who skilled in navigation and naval warfare. Zhang Jian, area commander of Yingzhou, commanded area command's soldiers of Yingzhou and Youzhou composed of zhechong fu weishi, guard warriors in Zhen, shu, fortress, Shouzhuo called Fanren in Chinese and nomadic cavalry of the Qitans, Xi, and Mohe.

Keywords: The Goguryo-Tang War in 645, zhechong fu weishi, recruited soldiers, the naval forces, non-Chinese soldiers